

▶독도는 어떤 곳이고 어떻게 갈 수 있나?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제일 끝,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위치하고 있는 섬입니다. 독섬이라고도 하며 동도와 서도 및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작은 부속도서 및 암초들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각각의 생김새에 따라서 물개바위, 독립문바위, 촛대바위, 얼굴바위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고 합니다.

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공개를 제한해 왔는데 제한지역(동도, 서도) 중 동도에 한해서만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입도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였다고 합니다. 관광의 경우 일괄적으로 입도 신고를 하면 방문이 가능하지만 특수 목적(행사, 집회, 취재 등)의 경우에는 입도 신청을 하여 허가 시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도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울릉도에 도착을 해야만 하는데 울릉도에 입도하였으나 독도의 기후가 좋지 않을 경우 접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도 방문이 어려울 것 같은데 독도 방문이 어려워지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기 때문에 독도에는 자연 경관이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독도에는 어떤 생물이 서식하고 있나?

2017년 1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당시 국민만찬으로 등장해 화제가 되었던 독도새우를 보고 독도의 생명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생명체를 넘어서 독도의 자연환경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독도에 거주하는 민간인은 2명(김성도·김신열 부부)이고 그 이외 47명은 경찰청 소속의 경비대라고 하여 독도는 매우 깨끗하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독도 바다에는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가시횃대, 희귀 산호 군락, 비늘베도라치 등 평소에는 우리가 바다에서 보기 힘든 생물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물들이 독도 바다 밑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기후가 좋아야만 방문이 가능하기에 사람들이 발길이 드문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독도의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 2015년도부터 '독도 해양생물 서식지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독도의 육지에는 갯이갈매기, 중부리도요, 흙비둘기 등 해양생물 만큼이나 다양한 생물들이 독도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갯이갈매기의 경우 독도의 유일무이한 친구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이유는 독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독도의 대표적인 생물을 하나 더 말하자면 '강치'가 있는데 강치는 독도의 역사와도 연관이 있어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생물입니다. 조선시대에 강치는 당시 울릉도 사람들에게 '바닷가제'라고 불렸었는데 그런 가제가 많이 출현한다하여 독도는 옛 문헌에서 '가제도'라고 명명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1900년대 초 일본어업인의 남획으로 인해 현재는 강치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일본이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섬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일본의 나카이 요사부로라는 어업사업가가 독도에서 강치 등으로 어로의 독점권을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얻기 위해 농상공부가 대한제국을 상대로 교섭해줄 것을 신청하는 청원서를 신청하였고 당시 일본 해군성이 신청서의 내용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 나서 빌려달라는 것"으로 요구하여 1904년 9월 29일 '량고도(독도)를 일본 정부에 편입하고 자신에게 빌려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05년 1월 10일에 내무성을 일본내각에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올렸고 이 내용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일본의 만행으로 독도에 자주 출몰하던 강치가 현재 보기 드물어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독도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나?

독도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영토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서부터 일본과 우리나라는 독도의 영유권문제로 논란이 빚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옛 문헌이나 역사서에서 보여 지듯이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에 속해 있었던 자료가 분명하게 나타나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또한 그들의 주장을 증명할 자료들이 몇몇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제사법재판소로 독도 영유권 분쟁이 넘어간다면 일본의 확실한 승소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의 범위마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에는 일본의 재판관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판관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가 지속된다면 일본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할 것이고,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일본의 독도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독도의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문제인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독도의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고 지구온난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들의 개발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무의식중에 하는 환경 파괴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보여질 수 있는 사소한 행동을 신중히 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 보고 이를 해결한 대안들을 내세워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아름다운 생태계가 만연할 수 있는 공간이고 다양한 생물들이 더불어 호흡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독도의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행동한다면 여러 사람이 함께 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독도의 생태계를 지키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